베테랑 경주마냐, 전성기 도전마냐

22일 새해 첫 대상경주 4세마 이상 출전
'해마루''글로벌퓨전' 우승경험 많아 기대
'고져스드림''신규강자' 4~5세마 상승세


22일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대상경주(세계일보배)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로 손꼽히는 '해마루'(사진 오른쪽)가 지난해 3월13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벌어졌던 '서울마주협회장배'에서 '글로벌퓨전'을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22일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새해 첫 대상경주가 열린다. 제9경주 세계일보배(1200m, 4세 이상), 상금은 2억5000만 원이다. 4세 이상이면 누구든 출전 가능한 레이팅 오픈경주다. 성별제한도 없다. 암말은 2kg의 감량혜택을 받지만 아쉽게도 이번에 출전하는 암말은 없다. 이 때문에 모든 경주마가 부담중량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채 순수하게 실력을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마루', '글로벌퓨전' 등 베테랑의 투혼을 기대해도 되나?

올해 첫 대상경주를 앞두고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건 베테랑 경주마 '해마루'와 '글로벌퓨전'이다. 각각 6세 8세로 경주마로서는 전성기를 지났지만 관록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해마루(한국, 거, 6세, R103)'는 스피드를 겸비해 단거리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출전마 가운데 가장 높은 레이팅을 자랑한다. 최근 연이어 입상할 만큼 기세도 좋다. 지난해에도 연초 '서울마주협회장배(GⅢ, 1200M)'와 '헤럴드경제배(2000M)'에서 우승해 기대감이 높다. 최근 장거리만 출전했다. 1200m에서 25%의 승률, 50%의 복승률을 기록 중이다. 부담중량도 성별에 따라 일정하게 정해져 여러모로 우승 호기다.

'글로벌퓨전(한국, 거, 8세, R96)'은 나이만 봐서는 경쟁력이 떨어져 보인다. 하지만 그냥 지나치기엔 지난해 활약이 눈부셨다. 2016년 첫 대상경주였던 '세계일보배'에서 우승했고 연이어 출전한 '서울마주협회장배'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직전 1등급 1200m 경주에서 '야호스카이캣'등을 제치며 당당히 우승해 녹슬지 않은 실력을 뽐냈다. 유명 씨수말 메니피의 자마답게 혈통 기대치도 높다. 지난해 꾸준히 단거리 경주에 출전해 거리감각을 늘렸다. 1200m에서의 입상률(6전 3승)도 좋아 우승을 넘본다.

●4세 5세로 한창 때인 '고져스드림' '신규강자', '야호스카이캣'

4~5세로 경주마로서는 전성기인 말들도 우승경쟁에 나섰다.

'고져스드림(한국, 수, 4세, R94)'은 데뷔 이래 줄곧 1400m 이하만 출전해온 단거리 강자다. 총 11번 경주에 출전해 우승 8회를 비롯해 단 한 번도 순위상금을 놓쳐본 적 없다. 지난해 7월, 1등급 승급 이후 4차례 경주에 출전해 이 가운데 우승을 2번이나 차지할 정도로 기세가 무섭다. 그 가운데 한 번은 이번과 같은 부담중량(57kg)을 안고 달려 우승한 것이었다.

'신규강자(한국, 거, 5세, R99)'도 눈여겨볼 말이다. 출발능력이 뛰어난 스피드형 경주마다. 단거리 경주에서 특히 경쟁력이 있다. 지난해 출전한 9번의 경주 모두 1400m 이하 중단거리였다. 이 가운데 4차례 우승했다. 덕분에 레이팅도 '해마루' 다음으로 가장 높다. 2등급에 있을 때보다 1등급 승급 이후 좋은 기량을 보여 '대기만성형 경주마'로 불린다.

'야호스카이캣(한국, 거, 5세, R88)'은 복병마다. 선입과 추입이 가능하다. 데뷔 이래 줄곧 1400m에만 출전해왔다. 1등급 승급 이후 우승은 없지만 매번 3위 안에는 이름을 올리고 있다. 우승보다는 입상 후보마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화훼농가 지원을 위한 꽃소비 행사에서 이양호 한국마사회 회장(사진 오른쪽에서 4번째)이 마사회 임직원들과 함께 작은 꽃화분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화훼농가 돕는 1 Table 1 Flower"

한국마사회, 모든 임직원에게 꽃 화분

한국마사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꽃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1 Table 1 Flower 캠페인'에 앞장서기로 했다. 한국마사회 모든 임직원에게 꽃 화분을 나눠주는 행사다. 한국마사회는 이번 캠페인이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꽃을 생활화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마사회는 임직원의 생일, 승진 등에도 직원들이 서로에게 꽃을 선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양호 한국마사회장은 "설을 앞두고 화훼농가 살리기에 마사회가 적극 앞장설 것이다. 1년 365일 꽃이 함께하는 기업을 만들겠다. 1 Table 1 Flower 캠페인이 국내 화훼산업에 종사하는 상인과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현재 화훼농가는 부정청탁금지법 이후 고전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경조화환, 꽃바구니, 꽃다발 등 화훼 거래금액은 전년대비 27% 감소했다. 화훼 도매시장의 거래물량도 15%나 줄었다.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한국마사회는 2017년에 팬지 등 20여 종 17만 본의 계절초화, 배지셀, 난간걸이 화분 등을 렛츠런파크 서울 관람대, 본관, 고객 동선, 경주로 전면 및 예시장 등에 배치할 계획이다. 마사회는 지난해에도 '벚꽃이 예술이지 말(馬)입니다', '화이트데이 장미꽃 이벤트', '꽃보다 포니' 등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꽃 소비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창제2동 에코 벚꽃축제, 청담동 한류스타 거리 꽃길, 구리 유채꽃 축제 등 지역행사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 국내 화훼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파워블레이드, 두바이월드컵 카니발 3위 "출발 좋다"

1600m경주 58kg 부담중량 이겨내고 선전

두바이월드컵 카니발에 출전한 '파워블레이드(한국, 4세, 수)'가 기분 좋은 첫 출발을 했다. 13일(한국시간) 제4경주로 펼쳐진 1600m경주에 출전해 세계최강 경주마들 속에서 3위를 기록했다. 함께 출전한 '디퍼런트디멘션(미국, 5세, 거)'도 7위를 차지했다. '파워블레이드'는 '노스아메리카'(North America), '니드투노우'(Need To Know), '퍼스트셀렉션'(First Selection) 등 쟁쟁한 경주마와 대결했다. 16마리가 출전한 대회의 총 상금은 1억5000만원. 국제레이팅 95 이상만 출전 가능했다.

'파워블레이드'는 출전마 가운데 어린 축에 속했지만 국제 레이팅 100을 받아 58kg의 부담중량을 이겨내야 했다. 한국 최초의 서울-부경통합 삼관마인데다 국제경주 '코리아컵'에서 맹활약했던 지난해의 성적 탓이었다.

김영관 조교사는 "부담중량이 높다는 건 부담이지만, 바꿔 말하면 어린 파워블레이드가 두바이 현지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실제로 한국말들에 대해 해외 각국의 관심이 상당하다"고 했다.

'파워블레이드'는 한국에서보다 초반 경주스피드가 빨라, 위치선점에는 실패했지만 추입 능력을 살려 코너를 돌며 경쟁자들을 제쳐나갔다. 결승선 직선주로에 접어든 이후 경주로 안쪽 코스 확보에 주력하며 3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우승은 '노스아메리카'가 차지했다. 기록은 1분35초65.

'파워블레이드'의 특성이 강하게 발휘된 경주결과가 나오자 전문가들은 "1600m보다 장거리에서 더 좋은 성적이 기대되는 경주마로 보인다"고 했다. 김영관 조교사는 "1,2위와 도착 차이가 커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지만 예상대로 주로상황이 경주전개에 유리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 각국에서 '파워블레이드'의 입상을 축하해줘서 기쁨이 두 배"라고 첫 출전의 소감을 밝혔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두바이 월드컵에 출전중인 '파워블레이드'가 현지에서 관리요원들과 함께 경마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경주마 등급별 레이팅 구간 조정…출전기회 확대

한국마사회가 레이팅 시행 2년 동안의 운영실적을 분석해, 오는 2월 첫 경마일부터 제도개선을 시행하기로 했다. 새롭게 달라진 레이팅 제도는 다음과 같다. ▲등급별로 레이팅 구간이 조정된다. ▲저연령마와 암말의 감량이 종전 대비 0.5kg 축소된다. ▲상금수준이 높은 대상·특별경주는 4~5위도 상황에 따라 레이팅이 증가된다. ▲휴양 전에 성적이 저조했던 말이 복귀 경주에서도 성적이 나쁘면 레이팅이 차감될 수 있다.

먼저 등급별 레이팅 구간 조정은 ○○~▲▲로 구분 짓던 과거 방식을 벗어나 올해부터 ○○이하(이상) 방식으로 운영한다. 경주마들에게 출전기회를 확대해 능력이 뛰어난 경주마를 발굴하고 능력을 끌어올릴 의도다.

대상·특별경주에서의 레이팅 부여기준도 조정했다. 종전에는 1~3위까지만 레이팅 증가 대상에 포함했으나, 올해부터 대상·특별경주에 한해 5위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저연령마(2·3세)와 암말의 부담중량 감량 기준도 조정했다. 종전에는 경주마가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4세마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연령마와 암말에게 많은 감량혜택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감량규모를 각각 0.5kg 축소한다. 대상·특별경주와 별정경주는 별도 적용이 가능하다. 김종건 기자

22일 렛츠런파크 서울 신년맞이 행사

한국마사회가 22일 렛츠런파크 서울 중문광장에서 맛있는 신년맞이 행사를 선보인다. 오전과 오후 총 2차례로 진행된다. 오전에는 윷놀이가 오후에는 제기차기 이벤트가 고객들을 맞이한다. 미션을 성공할 경우 한라봉을 선물로 주고 실패해도 먹거리가 있다. 관람대 1층 놀라운지에서는 추첨을 통해 귀여운 펭귄인형도 선물로 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를 참고. 김종건 기자

toto 스포츠토토

토트넘, 맨체스터시티 최근 맞대결 3연승…이번에도?

■ 축구 승무패 3회차 중간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대표 손준철)가 21일(한국시간)과 22일 열리는 독일 분데스리가 5경기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9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축구토토 승무패 3회차 게임을 발매한다. 투표율을 바탕으로 주요 대상경기들을 살펴본다.

축구토토 승무패 3회차 투표율 중간집계 (19일 오전 9시 현재)

번호	경기일시		원정	홈팀 승	무승부	홈팀 패
1	01.21 (토)	23:30	샬케04 : 잉골슈타트04	71.12%	17.80%	11.08%
2	01.21 (토)	23:30	볼프스부르크 : 함부르크	66.75%	21.86%	11.38%
3	01.21 (토)	23:30	아우크스부르크 : 1899호펜하임	18.74%	34.15%	47.10%
4	01.21 (토)	23:30	다름슈타트98 : 묀헨글라트바흐	16.18%	23.60%	60.22%
5	01.22 (일)	00:00	본머스 : 왓포드	61.03%	27.57%	11.40%
6	01.22 (일)	00:00	크리스탈팰리스 : 에버턴	12.17%	19.83%	68.00%
7	01.22 (일)	00:00	미들즈브러 : 웨스트햄유나이티드	24.06%	37.00%	38.93%
8	01.22 (일)	00:00	스토크시티 : 맨체스터유나이티드	12.65%	18.17%	69.18%
9	01.22 (일)	00:00	웨스트브로미치 : 선덜랜드	74.66%	16.26%	9.08%
10	01.22 (일)	02:30	맨체스터시티 : 토트넘홋스퍼	32.00%	29.26%	38.74%
11	01.22 (일)	02:30	라이프치히 : 프랑크푸르트	71.83%	17.43%	10.74%
12	01.22 (일)	21:00	사우샘프턴 : 레스터시티	46.77%	32.58%	20.65%
13	01.22 (일)	23:30	바이어04레버쿠젠 : 헤르타베를린	48.29%	25.30%	26.41%
14	01.23 (월)	01:30	마인츠05 : 퀼른	39.04%	35.08%	25.88%

●참가자 38.74% "6연승 토트넘, 맨체스터시티 제압"

원정경기를 치르는 토트넘은 최근 맨체스터시티에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 2015년 9월 4-1승리 이후 리그 맞대결에서 3연승을 거두고 있다. 최근 흐름도 토트넘으로 기울어있다. 2위 토트넘은 최근 6연승을 달리고 있다. 반면 맨체스터시티는 직전 경기에서 에버턴에 충격적인 0-4 참패를 당하는 등 최근 10경기에서 5승1무4패로 부진하다. 이번 회차의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에서도 토트넘(38.74%)이 맨체스터시티(32.00%)에 앞선다.

원정에 나서는 5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9위 스토크시티를 꺾을 것이란 예상이 69.18%로 압도적이었다. 최근 두 팀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스토크시티는 기나긴 부진의 터널에서 벗어나 왓포드와 선덜랜드를 연파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 최근 10경기에서 9승1무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객관적 전력과 분위기에선 그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무게의 추가 기우는 편이다. 그러나 시즌 첫 맞대결 결과 1-1 무승부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선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한 경기다.

●참가자 71.83% "승격팀 라이프치히 돌풍 계속"

분데스리가에선 승격팀 라이프치히가 무려 71.83%의 지지를 얻었다. 라이프치히는 올 시즌 처음 1부리그 무대를 밟았으나, 11승3무2패로 당당히 2위에 올라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를 강타한 레스터시티를 방불케 한다. 특히 올 시즌 안방에선 6승1무의 놀라운 성적을 내고 있다. 2.0골을 뽑고 0.7골을 허용했을 정도로 홈에선 유독 강했다.

단, 맞대결 상대인 4위 프랑크푸르트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랑크푸르트는 최근 10경기에서 5승4무1패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 시즌 총 16경기를 치르면서 기록한 0.8실점은 1위 바이에른 뮌헨(0.6실점)에 이어 리그 전체 2위에 해당한다. 더욱이 원정 8경기의 평균 실점은 0.6골에 불과하다. 라이프치히가 프랑크푸르트의 견고한 수비벽을 뚫지 못한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번 축구토토 승무패 3회차는 21일 오후 9시50분 발매 마감된다.

"KDB 60점대-우리은행 70점대" 예상 1순위

■ 농구 W매치 12회차 중간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가 20일 오후 7시 구리체육관에서 펼쳐지는 2016~2017시즌 국내여자프로농구(WKBL) KDB생명-우리은행전을 대상으로 한 농구토토 W매치 12회차 게임의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전체 참가자의 62.76%는 원정팀 우리은행의 승리를 내다봤다. 같은 점수대 박빙승부 예상은 23.54%, 홈팀 KDB생명 승리 예상은 13.71%로 각각 집계됐다. 전반에도 우리은행 리드 예상이 64.99%로 가장 높았고, KDB생명 리드 예상(21.13%)과 5점 이내 접전 예상(13.88%)이 그 뒤를 이었다. 최종 득점대에선 KDB생명 60점대, 우리은행 70점대 예상이 15.93%로 1순위를 차지했다.

올 시즌에도 우리은행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다. 개막 13연승에 이은 최근 8연승으로 21승 1패를 기록 중이다. 최근 5경기에서도 상대팀을 평균 22점차로 꺾는 등 압도적 전력을 과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또 올 시즌 4전승을 포함해 지난 시즌부터 KDB생명에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토토팬들이 우리은행을 선택한 이유다. 이번 농구토토 W매치 12회차는 경기 시작 10분 전인 20일 오후 6시50분 발매 마감된다.

흥국생명 승리 62% vs 도로공사 승리 38%

■ 배구 스페셜 11회차 중간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20일 벌어지는 2016~2017시즌 국내프로배구 V리그 남녀부 경기를 대상으로 한 배구토토 스페셜 11회차 게임의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전체 참가자의 61.60%는 여자부 도로공사-흥국생명(1경기)전에서 원정팀 흥국생명의 승리를 점쳤다. 홈팀 도로공사 승리 예상은 38.40%에 그쳤다. 최종 세트스코어 예상에선 2-3 흥국생명 승리(41.39%), 1세트 점수차 예상에선 5점(37.75%)이 각각 최다였다.

남자부 OK저축은행-대한항공(2경기)전에선 홈팀 OK저축은행 승리 예상(56.32%)이 원정팀 대한항공 승리 예상(43.68%)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종 세트스코어 예상에선 2-3 대한항공 승리(20.75%), 1세트 점수차 예상에선 5점(29.73%)이 각각 1순위를 차지했다. 이번 배구토토 스페셜 11회차는 1경기 시작 10분 전인 20일 오후 4시50분 발매 마감된다.